

마음 속 방해 요인을 어떻게 할까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 편역)

24. 의식의 자기의 문제 ④

바닥 깊은 곳에 있는 것
 마지막으로 그러나 중요한 근본불교의 또 다른 관점에서의 비판에 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요즘의 표현으로 한다면 의식(意識)의 자기에 관한 문제이다.
 아함부(阿含部)의 한 경전은 붓다의 한 제자가 마침내 자살(自殺)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름을 고오티가라고 하는 그는, ‘방일(放逸)하지 않으며, 열심히 정근(精勤)하면서’ 가끔 해탈(解脫)의 심경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또 다시 퇴전(退轉)하여 번뇌 속에서 지냈다. 이런 일을 여섯 번이나 반복한 후에 그는 마침내 스스로 칼을 들고 자살한 것이다. 그 기술(記述)은 오늘날에도 역시 읽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방일하지 않으며 열심히 정근하는’ 자가 그래도 가끔 퇴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는, 가끔 문제를 처리 하는데 있어 대승불교의 여러 분야를 섭렵하며 거기에서 어떠한 시사(示教)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조금도 잘못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의 사상가들은 가장 빠른 시대에 가장 정밀한 사색(思索)을 이러한 의식의 자기에 대해서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밀한 사색 연구의 결실, 교묘한 처리의 방법은 앞으로 더욱 깊은 주의를 끌 것이며 높은 평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 대승불교가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게 된 이유도 또한 근본불교의 자기비판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 이유를 찾아서 들어가면 사람은 마침내 자기의 의식 밑의 것에 생각이 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속에 자기가 전혀 모르는 ‘그 무엇’이 살고 있다. 그것은 내 가슴 바닥의 밑바닥에 시커멓게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들의 이성(理性)이나 의지(意志)의 손은 거기까지 닿는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그것은 그 바닥 깊은 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들의 의지나 행동을 조정하며 움직이게 한다. 이런 것을 우리들은 자기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끔 이것이 착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또 이것은 행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마음이 끌려간다. 성내면 안 될 줄 알면서도 성내는 것은 그때문이며 술을 마시지 말라고 충고하는데도 마시며 실패를 반복하는 것도 그때문이며, 이제 고오티가가 ‘방일하지 않으며 열심히 정근’ 하면서도 가끔 퇴전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결국은 그러한 내 마음 속의 방해자(妨害者)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봉선사 법당의 설산수도상. 석가모니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끊어내는 고행을 했다.

자기 심층의 문제
 근본불교도 또한 자기의 깊은 곳에 응크리고 있는 방해자(妨害者)에 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붓다의 가르침은 언제나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 갔으며 자기의 심층(深層)에 내려가서 해결한다는 방법적 모색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법구경>의 다음과 같은 구절로 그 특징을 말하여 볼까 한다.

나무뿌리가 손상되지 않으며 견고하면 나무는 잘리어도 또 자라난다.
 이것처럼, 애욕(愛欲)의 미혹(迷惑)을 끊지 않으면 여러번 여러번 다시 고통(苦)는 생겨난다.

과 분석은 의식의 표면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구조를 분석하여 오온(五蘊)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그 분은 인간의 의식의 작용을 관찰하여 육처(六處)를 세웠다. 또 다시 12연기(十二緣起)나 사성제(四聖諦)나 하는 것은 모두 의식상(意識上)의 문제에 초점을 두며 인간 생활의 현실과 당위(當爲)의 사유방식을 갖추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팔정도(八正道)를 대표로 하는 실천의 계획에 관해서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견(正見)은 그 기체(基體)로 하는 팔정도의 구성은, 그러한 점을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 올바른 사유(思惟)를 지닌다. 올바

른 삼업(三業)을 갖는다. 올바른 생업(生業)에 몸을 둔다. 그리고 올바른 정진을 계속한다.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 생활의 당위(當爲)를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붓다의 가르침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 아마 여기에 인간실천의 큰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붓다는 처음으로 그 큰 길을 인류의 세계 속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확립시켜준 사람이었다.

그 큰 길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광범하다. 그러나 광범하다는 것은 결코 저열(低劣)하다는 뜻도 아니며 쉽다는 뜻도 아니다. 도리어 인간실천의 면에 있어서는 광범하다는 것이 가장 우수하며 가장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여러 번 경험 하였다. 그리고 붓다에 의해서 가르쳐진 큰 길도 역시 그런 것이었다.

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견(正見)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삼업(三業)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올바른 노력을 쌓는 것은 더구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 또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는 것이 있어 뜻밖에 그것이 나타나면 모처럼의 노력이 수포(水泡)가 되어버린다. 스승은 언젠가 그 알기 어려운 것을 돌아보며 ‘지혜로써 그 뿌리를 끊어라’고 가르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것의 뿌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일까. 이렇게 하여 사람들의 관심은 차츰 이 자기의 안에 있는 알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행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일곱 가지 아내

불교에는 칠처경(七妻經)이 있다. 일곱 가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첫째는 스승 같은 아내요, 둘째는 친구 같은 아내요, 셋째는 오누이 같은 아내이다. 다섯째는 원수 같은 아내요, 여섯 번째는 종이나 하인(下人)같은 아내이며, 일곱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아내이다.

하여, 불교 학자나 스님들이 불교 신도를 상대로 강의 할 때 일곱 가지 아내를 자주 등장시킨다. 대개가 전전생(前生)의 인연까지 끌어들이며 부부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노력한다. 전생(前生)에 착한 인연을 많이 남긴 사람일수록 부모 같고, 스승 같으며 친구 같고 오누이 같은 반려자를 만난다는 설명이다.

지은 업장(業障)이 검은 그림자로 덮여 있으면 금생의 반려자를 만나되, 어쩔 수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여 바라보기조차 싫은 원수 같고, 종이나 하인 같은 있으나 마나한 아내와 남편을 맞게 된다는 구차스런 설명도 늘어놓는다.

이 심한 그 자체가 문제일 뿐.

천사와 악마

강의할 때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엉뚱한 질문을 던져본다. “이 세상에는 천사가 있긴 있는데, 혹시 그 숫자를 아십니까?”

천사라는 말에 힌트를 얻어 1004명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 “천사의 수는 알겠는데, 그럼 악마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대개는 난센스(Nonsense)일 수 있는 이 질문엔 대답이 긴 침묵으로 이어진다. “천사가 천사 명이라면 악마 또한 천사 명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지킬 것과 하이드는 돌이 아닌 하나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천사와 악마는 돌이 아닌 하나이다. 열려 있을 때는 천사지만 닫혀 있을 때는 악마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자. 자식이 바람피울 경우 대개가 쉬쉬 임가림을 하지만, 사위가 바람피울 경우 입놀림이 분주해진다. 시집 간 딸

감정에 따라 대상은 변화한다 빛과 어둠은 돌이 아닌 하나다

금생(今生)에 더욱 선근(善根)의 씨앗을 뿌리고, 보시(布施)하고, 복을 지어 내생(來生)에는 부모 같고, 스승 같으며, 오누이 같고, 친구 같은, 좋은 반려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을 짓자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일곱 가지 아내를 등장시킨 가르침에는 전생(前生)이나 내생(來生)을 중요시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금생의 오늘 함께 살고 있는 반려자가 내 행위와 마음가짐에 따라 일곱 가지 아내로 바뀌어가며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아내는 같은 아내 한 여자이지만, 그때그때의 상황과 분위기, 마음의 변화에 따라 부모처럼 보일 때도 있고, 스승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다. 감정 변화에 따라 그렇게 좋고 편하던 아내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며 종이나 하인처럼 무시하거나 멸시하고픈 감정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러는 아내의 존재가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아내 뜻은 아닐 것이다. 내 눈높이, 내 감정의 폭의 업다운(Up Down)

이 바람피울 경우에는 쉬쉬 입조심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며느리가 바람피울 경우엔 사정이 백팔십도로 달라진다.

사위나 아들은 같은 남자이다. 딸과 며느리도 같은 여자이다. 그런데 감싸안을 남자가 따로 있고, 쌍지팡이 짚고 대를 여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자, 다시 이야기를 첫 부분으로 옮겨보자. 천사와 악마가 돌이 아닌 마음 작용의 하나라면, 행복과 불행도 느낌의 차이일 수 있을 터이다. 흔히 종교계에서 떠벌리는 지옥과 천당도 마음의 온도계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자.

쌀독에 반쯤 남은 쌀을 보고도 배고픔과 격정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쯤이 남아 있어 다행이라며 부지런함에 마음의 채찍을 다짐하는 여유도 부릴 수 있을 터이니까. 문을 열면 장안(中京의 옛 서울)으로 길이 통한다(開門 卽透長安)는 생각보다는, 문을 열면 곧 장안(開門卽長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는 본시 동, 서, 남, 북이 없는 법이다. 빛과 어둠 또한 돌이 아닌 하나이다. 천사인 당신은 때로는 악마일 수 있고, 악마인 당신은 때로는 천사일 수 있을 테니까.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자킴이 염주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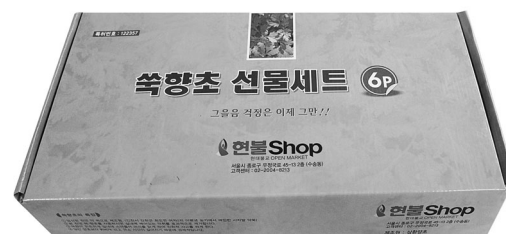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윽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양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잠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